

안철수당 이미지 탈피...대선 연대와 통합 탄력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선출 의미와 전망

전국정당화 모색 安 전 대표 타격...대선전략 엿박자 우려

호남의원 압도적 지지 당선...당권력 재편 여부도 관심

전남 4선인 주승용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됨에 따라 국민의당의 ‘호남 노선’이 한층 강화됐다. 주 신임 원내대표가 개헌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의 ‘라닝메이트’인 조배숙(전북 익산)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선출됐고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이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국민의당은 사실상 ‘호남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국민의당의 전국정당화를 통해 조기 대선에 임하려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안 전 대표가 야권통합론과 후보 단일화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는 것과 달리, 주 신임 원내대표가 야권 연대와 연립 정부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대선 전략에 있어 엿박자도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모든 세력과 협상과 대화 테이블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박(비박근혜)이 주축이 된 개혁보수신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와는 엇갈리는 지점이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선되자마자 비박 진영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어찌느냐”며 “민심을 감안, 비박 진영과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의 당선은 투표권을 가진

22명의 호남 의원들 가운데 일부 초선을 제외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 후보였던 김성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서 호평을 받은 데다, 전국적 수권정당화의 기치를 걸었음에도 주 원내대표를 선택한 것은 ‘호남 코어론’이 힘을

을 받았다는 해석이다.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끌어안은 뒤 대선에서 기회를 모색해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 의원이 ‘안-박’(안철수-박지원) 진영의 측면 지원을 받았음에도 주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은 당내 권력 구도의 재편을 시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중심이 아닌 호남을 정점으로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 중심의 세력 확장을 꾀한 것과 달리, 호남 의원들은 국민의당이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제3지대

의 세력들과 다양한 연대를 모색하는 데 무게를 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거리를 두고 있는 안 전 대표와 달리, 국민의당은 더욱 문을 열어 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기에 호남 중진의원들이 결집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내달 15일 펼쳐지는 박지원-정동영 양강 구도의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내달 15일 지도부 경선과 조기 대선 정국에서의 국민의당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주승용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조배숙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선출됐다. 주의원과 조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총35표중 과반을 득표해 신임 원내지도부가 됐다.

“친박·친문 제외 모든 세력과 대화 나서야”

주승용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 “호남당 이미지 덧씌워지지 않게 하겠다”

국민의당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모든 세력과 협상과 대화 테이블에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하고 “정체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친박과 친문은 우리와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그래야 제대로 된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3지대가 분열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안철수 사당(私黨)”이라는 지적이나 호남당이라는 지적 모두 우리 당이 극복해야 한다”며 “호남당의 이미지가 덧씌워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른 3당 원내대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저와 같이 의원활동을 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비문진영이 저의 고향이다. 비문세력과는 지금도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혁보수신당 역시 제4선을 하는 동안 같이 활동한 분이 많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안 주씨’ 동성동본으로 집안의 동생이고 성격도 비슷하다”며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토론회에서 많이 봤다”고 답했다. 대화를 통해 각종 현안을 풀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그는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 “36명으로 증원되면서 우리 당에서는 5명이 포

함되는 것으로 들었다”며 “개헌에 대해 충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의원들, 성실한 의원들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선 인사차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 “국회가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할 일이 산적했다”며 “2월, 4월 국회만 할 게 아니라 내년 대선 때까지 상설국회로 해서 24시간 쉴 때까지 않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속도감 있게 개헌하는 게 필요해서 우리당에서 제일 먼저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개헌한다면 역사상 가장 평가받는 국회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프로필

합리적이지만 때론 강단...대선정국 역할 주목

주승용 원내대표

치로 발을 넓혔다.

이후 야당 소속으로 내리 3선을 지내며 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당내에서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주류로 떠오르면서 이들과 번번이 갈등을 일으켰다. 지난 2015년 2월 출범한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지만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이후 올해 초 탈당을 감행한 그는 이후 안철수 전 대표 측에 합류해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4선에 성공했다. 부인 정현숙씨(59)와 1남 2녀.

▲고흥(64) ▲광주제일고 ▲성균관대 전자공학과 ▲전남도의원 ▲여천군수 ▲여수시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17·18·19·20대 국회의원

첫 여성 검사·전북 첫 지역구 여성의원 ‘명성’

조배숙 정책위의장

4선의 호남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당의 첫 여성 정책위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조 의장은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에 발령받으며 국내 첫 여성 검사로 명성을 떨쳤다. 1986년 판사로 전관해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당시에는 여성 판사에게 영장 당직을 맡기지 않던 관행을 깨뜨렸다.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2003년 12월 열린우리당에 입당, 이듬해 치러

진 17대 총선에서 익산에서 당선되며 전북지역 첫 지역구 여성의원 타이틀을 따냈다.

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의당에 입당해 익산에서 당선됐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영란 대법관과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동기다.

▲익산(60)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2회 ▲서울지검 검사 ▲서울고법 판사 ▲여성변호사회 제3대 회장 ▲16·17·18·20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광주서 새해 맞는다 1일 무등산 해맞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17년 신년을 광주에서 맞는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문 전 대표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1박 2일간 광주행을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오는 31일 전주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밤 늦게 광주로 이동한 뒤 다음날 새벽 무등산에 올라 새해를 맞을 계획이다.

문 전 대표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3월에 이어 28일 만이다. 당시 문 전 대표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6차 광주 시국촛불대회에 참석했었다.

문 전 대표가 조기대선 실시가 예상되는 새해를 광주에서 맞는 것은 호남민심을 확실히 얻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야권주자로 설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태영21병원 개원 5주년

박문경 초청음악회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2017년 1월 19일(목) 7:00(PM)

태영21병원 세미나실

인공신장실(야간투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종합검진센터(전신 MDCT 보유) 입원실(46 bed)

당뇨병·갑상선 연구소(국가공인) 아침 7:30분 부터 검진시작

유방클리닉(외과 전문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주천변로

광천사거리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